

6. 大津・오쓰



1. 地域概観・지역개관

大津は江戸に向かう途中の宿泊地として利用したというよりは主に、休憩をはさみながら通過しました。朝鮮通信使一行は、大津をすぎると琵琶湖が見えることを楽しみにしました。朝鮮には琵琶湖のような大きな湖は無いからです。

京都の方広寺での宴会拒否や耳塚を見て心を痛める朝鮮通信使を配慮し、雨森芳洲が以後は京都ではなく大津に宿泊することを提案したことで、一行が琵琶湖に大きな期待をしていたという理由もあったでしょう。

京都方面から旧東海道の追分を東へ、逢坂山峠を越えて琵琶湖に向かって東西に広がるエリアを「大津百町」といいます。江戸時代中期には町数が百カ町以上あったことから、その繁栄を表し「大津百町」と呼ばれるまでに発

오쓰는 에도로 향하는 중 숙박지로 이용되기 보다는, 휴식을 취하고 통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통신사 일행은 오쓰를 지나며 비와호를 보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조선에는 비와호처럼 큰 호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교토 방광사(호코지)에서의 연회를 거부하거나 귀무덤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통신사 일행을 배려해, 아메노모리 호슈가 교토가 아니라 오쓰에서 숙박할 것을 건의한 것은, 일행이 비와호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교토 방면에서 구 토카이도의 분기점을 동쪽으로, 오우사가 산 고개를 넘어 비와호 방향 동서로 펼쳐진 지역을「오츠하쿠쇼」라고 한다. 에도시대 중기에는 마을 수가 100개 이상 있는 것을 의미해서「오츠하쿠쇼」라고 불릴 정도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오쓰하쿠쇼의 시작은 아즈치모모야마 시대인 1586경에 비와호 기슭에 오쓰성이 축성되고 죠카

展したためです。

大津百町の始まりは、安土桃山時代の1586(天正14)年頃に琵琶湖岸に大津城が築城され、城下町が誕生した頃にまで遡ります。

大津の町は江戸時代には天領となり、代官所が置かれました。それから明治までの約300年の間、大津は東海道五十三次の宿場町、湖上水運の陸揚げ港町、三井寺参詣の門前町として大いに栄えてきました。

戦前までに建てられた伝統的な建築物や、隣接する京都の町家の影響を受けた大津町家など、歴史的な文化資源が現在も各所に残っている魅力的なエリアです。

京都を出て大津までに日の岡、逢坂という二つの峠があって、江戸時代にはここに敷石が要所に敷き詰められた車道がありました。朝鮮通信使が来日した際もこの道を通しました。しかし、大津市歴史博物館にある資料(「朝鮮人来朝に付、大津道筋伺書」)を見ると、20日も前からたくさんの人が車道の工事にかかり、道を掃除し、峠に高提灯を準備するなどを命じられていることがわかります。

마치가 생긴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쓰는 에도시대에는 막부직할지로, 다이칸쇼(막부 관리가 정무를 보는 곳)가 설치되었다. 그 후 메이지까지 약 300년간, 오쓰는 토카이도고쥬우 산츠키(에도시대에 정비된 전국 다섯 개 도로 중 하나인 토카이도에 있는 53개 숙소를 지칭함)중 하나, 호상 운송의 항구 마을, 미이데라 참배의 몬젠마치(중세 이후 신사나 절의 문전 부근에서 발달한 시가)로서 크게 번영했다.

교토를 나와 오쓰까지의 길에는 히노오카, 오우사카라는 2개의 고개가 있었는데, 에도시대에는 여기에 포석을 요소에 깔아놓은 차도(車道)가 있었다.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올 때도 이 길을 통과했다. 하지만, 오쓰지역사박물관에 있는 자료(「朝鮮人来朝に付、大津道筋伺書」)를 보면, 20일이나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수레의 바퀴가 이탈하지 않도록 차도 공사를 하고, 도로를 청소하며, 길에 등을 다는 일 등을 명받았던 것을 알 수 있다.

태평양 전쟁 전에 지어진 건축물이나, 인접한 교토 시가들의 영향을 받은 오쓰 옛 건물 등 역사적 문화적 자원이 현재 곳곳에 남아있는 매력적인 지역이다.



円山応震「琵琶湖図」全景(右下方に通信使の行列)・마루야마오우신「비와호도」전경(우측하단쪽에 통신사행렬)



琵琶湖圖の落款(前圖の左側)
비와코 그림 낙관(앞그림 좌측)



琵琶湖部分拡大図、円山応震筆(滋賀県立琵琶湖文化館蔵)
비와호 부분 확대도, 마루야마 오우신 작(시가현립비와문화관 소장)

3. 疲れ取りの宿・ 숙소

本長寺・ 혼초지

大津の本長寺は休憩場所で、宿泊しませんでした。しかし2回だけ宿泊したことがあります。1回目は1624(寛永元)年で、理由は確実には残っていません。2回目は1711(享保4)年です。往路の際は通信使の正使の病氣と淀から京都への道中において荷物の到着が遅延したため、帰路は京都方広寺大仏前での招宴を拒否したことによるめ事が発生したためです。この時の事に関しては通信使の従事官である申維翰の『海游録』に詳しい記録が残っています。

오쓰의 본장사(혼초지)는 휴식 장소였고, 숙박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2번 숙박한 일이 있다. 첫번째는 1624년의 일로, 이유는 확실히 전해지지 않고 있다. 두번째는 1711년의 일이다. 에도로 향할 때는 통신사 정사의 병과 요도에서 교토로 향하는 도중에 짐의 도착이 늦어졌기 때문이고, 에도에서 돌아올 때는 교토의 방광사 대불 앞에서의 연회를 거부한 일로 의견 대립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의 일에 대해서는 통신사 종사관인 신유한의 『해유록』에 상세한 기록이 남아 있다.



本長寺の正門と境内 혼초지 정문과 경내